

여야 국회의원·광주시·전남도 국비확보 공조 나서

새정치-광주시 정책협, 21당당론컨트 개발비 확보 등 노력

새누리-시·도 정책협,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비 등 논의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등 여야가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공조를 약속하고 결과가 주목된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광주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나 예산·정책협의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신기남 참총방지부위원장, 이춘석 의원, 장병완 의원, 김동철 의원, 윤장현 시장, 오형국 행정부시장, 우병기 경제부시장,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전남만 해도 강기정 의원과 권은희 의원 등도 참석하기로 했으나,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비 680억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 조성 632억원, 조경량 고강성 차체 사시부품 개발 70억원, 광주 R&D특구 연결도로 개설 60억원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특히 내년 9월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관련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윤 시장은 "광주의 경제관련 지표나 지수가 대부분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으나 한계를 느낀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기남 위원장은 "전력을 다해 광주시의 요청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으며, 장병완 의원은 "여야 대치국면과는 별개로 국회 예산심의를 최선을 다해 광주시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간사와 김동철 의원은 "앞으로 광주시와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에 앞서 소속 단체장의 지역을 찾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지역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새누리당 예산정책협의



새정치민주연합과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정책협의회의가 3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주요 국비 반영사업들을 논의하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회의가 광주시와 전남도를 초청해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시·도는 누락되거나 축소된 내년도 국비사업 예산의 부활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남도는 이날 지역발전을 위해 시급한 5대 사업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사업은 요구액에 비해 턱없이 적게 정부 각 부처 예산안에 포함됐거나 아예 배제된 것으로, 여당 의원

들의 강력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주요 건의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 사업비 1500억원을 비롯한 남해안철도 보성~임성 구간 사업비 1500억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공사비 200억원,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30억원, 주암댐 도수터널 안정화 사업비 1765억원 반영 등이다. /윤현석·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美 때문”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3일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연기한 이유는 국내 산업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과 TPP 참여에 목면 박근혜 정부의 ‘통상독제’로 인해 국회의 입법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한국의 정책주권 역시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제통상전문지 보도를 보면, 국내 자동차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시기를 연기했다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굴복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임을 알 수 있다”면서 “이번 사안은 한미 FTA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해 한국의 현행법률이 무력화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관광진흥개발기금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3일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이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기업 면세점들은 국가로부터 관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등의 특혜를 받고 있지만, 공적재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항목은 ‘특허보세구역허가 상’ 이용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전부를 매출기준 0.05%(중소기업 0.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2008년 3조1000억원에서 2013년 6조8000억원(관세청 자료)으로 불과 몇 년 만에 118%라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정부특보 장현 교수 선임

민선 6기 광주시 정부특보에 장현(58) 호남대 교수가 3일 선임됐다.

시는 최근 정부특보에 응모한 2명을 대상으로 서류·면접전형을 실시, 장 교수를 정부특보 합격자로 선정했다. 장 신입 정부특보는 영광 출신으로 광주고와 고려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영광군수 선거 등에 출마하기도 했다. 장 정부특보는 광주시장 선거 때 윤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운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광주시는 정부특보와 함께 공모한 투자유치서울사무소 대외협력담당은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선발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lucky@kwangju.co.kr



3일 광주시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윤장현 광주시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사진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창의적 혁신 마인드로 광주 디자인해 주세요”

윤시장, 도시디자인과 ‘일출’ 사진 선물

윤장현 광주시장이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가 아닌 ‘선물’을 활용해 자신의 시장철학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시장’다운 참신한 행보라는 내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일출 광경이 담긴 사진 1점을 도시재생국 도시디자인과에 선물했다.

가로 70cm, 세로 50cm 크기의 이 사진은 윤 시장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으로 지리산 반야봉의 어둠을 뚫고 태양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담고 있다. 윤 시장은 지난 7월 시장 취임 직후 각 실·과를

방문하던 중 도시디자인과에서 “광주를 사람 중심의 매력적인 도시로 디자인하려면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창의적인 혁신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면서 “사무실 분위기부터 디자인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밝고 희망적인 환경으로 단장했으면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윤 시장의 이번 일출 사진 선물은 직원들이 창의적 마인드로 무장해 광주를 새롭게 디자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는 해석이다.

시장의 깜짝 선물을 받은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은 일출 사진을 사무실 벽에 걸어놓은 뒤 디자인 업무에 대한 정신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었다는 후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추경 예산 4536억 증액 편성

전남도는 3일 “장기간 경기 둔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및 국정과제, 민선 6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4536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지원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 및 법적·무의적 경비를 반영한 것이다. 전남도는 당초 예산 5조8032억원보다 4536억 원(7.8%)이 증액된 6조 2568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정해 지난 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에 반영된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은 장기간 경기 둔화로 침체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428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은 차부품 고급 브랜드와 성능연구센터 건립 46억원, 햇살론 보증지원 출연 24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44억원, 동물대체 시험인공기반 구축 8억원, 대불산단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10억원, 천연물 의약품 임상·비임상 시험원료 위탁시스템 구축 10억원,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생태 구축사업 20억원 등이다. 관광 및 문화·예술·체육 진흥분야 421억원,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림·해양·수산분야 962억원,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 복지·건강 증진 분야 307억원, SOC 확충 등 건설교통 및 주민안전 분야 576억원, 교육, 환경 및 일반행정분야에는 1227억원 등이 배정됐다. 송상락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예산은 매년 상반기에 추진해왔으나 올해는 6·4 지방선거가 있어 신입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 편성하게 됐다”며 “도민들의 소중한 열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제외하는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와 건전운영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발전 거버넌스 연구회 첫 모임

광주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광주발전 거버넌스 연구회’(이하 연구회·대표의원 이은방)가 2일 오후 시의회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연구회는 광주시의원 22명 전원이 참여해 호남학을 포함한 광주역사 재인식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성장동력 모색방안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졌다. 이은방 의원 주도로 7대 의회 개원과 함께 발족했다.

연구회는 ▲광주 역사 바로알기 ▲호남학의 현재적 위치와 발전방향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방안 등에 관해 전문가 초청특강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해 나간다. /최권일기자 cki@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경품 행사

기간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경품추첨일 2015년 정기총회(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공고)

선물1 기념품(택1)
카드영수증, 핸드폰 충전기

선물2 계약시 즉석복권 증정(100%당첨)
냉장고, 세라믹냄비, 공기청정기

선물3 계약시 경품 응모권 증정

- 1등 | 황금열쇠 수금 1냥(1명)
- 2등 | 가전제품 100만원 상품권(2명)
- 3등 |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3명) [동반 1인 포함]
- 4등 | 온누리상품권 5만원(4명)
- 5등 | 온누리상품권 3만원(100명)

※ 중복 당첨시 상위 품목으로 증정, 재추첨권 부여 불가

가전제품 상품권 1,000,000원

※ 상품권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격기준
• 출자금 10만원 이상 입금고객
• 정기예금 월1,000만원 이상 가입고객
• 대출 1,000만원 이상 실행고객
• 생명공제, 자동차보험 가입고객

※ 전자금금 신규자
•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자
• 체크카드 신규자(1회 이상 이용고객)
※ 경품추첨일까지 정산유지 및 이용 거래자
※ 상기 자격기준은 회원에 한함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대인동 한미소방 1층)
충장지점 223-7217, 223-7218(충장로5가 입구)

상상할수 없는 파격조건!! 동성노블리 특별분양!!

전세가격 폭등!! 차라리 내집을 사자!!
용봉동 동성 노블리 3차

11월 (예정) 무이자 78/75

한자리에서 북구의 모든 실속을 누리려!

1. 실입주금 2천만원(최소 금액으로 입주가능)
2.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3. 용봉C 입방항 공사 예정(불편한 교통환경의 해소로 인한 미래까지 상승 요인)
4. 전·월세 보증금으로 내집 마련(2,000~4,000만원대)
5. 일일청소서비스 총 1,400세대 분양전환으로 인한 임대수요 풍부

노블리 ONGSUNG

세종 (주) 동성노블리·(주)가성리츠 사파 동성종합건설(주)

385-3080